

“올바른 불교관 정립이 시급하다”

조성택 고려대 교수, 광주불교 열린대화마당서 강조

“한국불교의 미래는 올바른 불교관을 정립하고, 청년·실천·중생·현재불교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국불교의 문제와 나아갈 방향에 대한 토론이 광주에서 개최됐다. 광주전남불교 NGO연대(대표 정선, 대광사 주지)는 1월 16일 광주 선덕사에서 조성택 고려대 철학 교수 초청해 ‘한국불교의 현실과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열린대화 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강연에서 조성택 교수는 현재 한국 불교의 문제점과 미래를 위한 다양한 변화 방안을 주문했다.

조성택 교수는 “불교사의 다양한 전통들은 진리의 당체인 불설을 역사적 시공간에서 구현하고자 했던 노력의 과정이자 산물이다”라며 “불교의 역사는 전통에 안주함 없이 늘 새로운 전통을 세우나가고, 변화하는 종교적 환경에 주체적으로 적응함으로써 보다 본래의 메시지를 역사속에서 직접적으로 실현해온 역사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이어 오늘날 한국불교의 현실에 대해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는

16일 ‘한국불교 현실과 방향’ 강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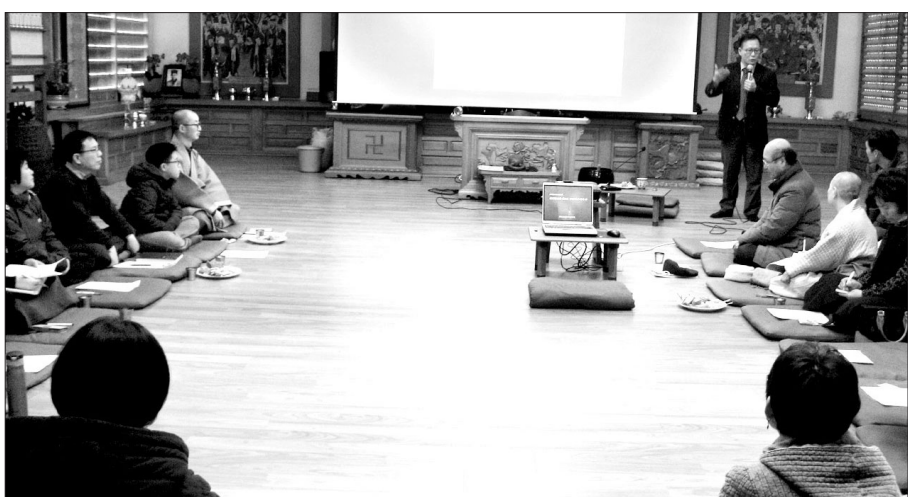
50여 불자 참여, 불교계 변화 주문

“실천하는 재가불교 모습 필요”

데서 오는 집단적 위기감과 한국사회에 대한 지도력을 상실한데서 오는 자존감의 상처가 있다”며, “또한 새로운 종교환경에 대한 이해부족과 부처님 본래의 메시지를 구현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신과 무기력의 근본 원인이다”라고 지적했다.

조성택 교수는 또한 한국불자들에게 대한 현실도 지적했다. “한국불교의 관념과 전통에 매몰된 상황이다”고 지적한 조성택 교수는 한국불자들에게 대해 “몽매하거나 지나치게 특색한 한국의 불자들”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또 구체적 실천방안이 없는 관념으로서의 불교가 만연돼 ‘관중’이 되어버린 재가불자들의 상황을 역설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새로운 실험과 모색이 필요하며, 신대승불교운동을 시작해야 한다”며 구제적 방법으로 “사할”이라는 지리적 공간을 중심으로 불



1월 16일 광주 선덕사에서 열린 열린대화마당은 50여 불자들이 참여해 이날 강연자로 나선 조성택 교수와 불교 미래를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다.

교를 사유하는 것, ‘출가’라는 제도를 중심으로 불교를 사유하는 것, ‘석가모니 붓다’라는 과거를 중심으로 불교를 사유하는 것에서 벗어나 현대사회에 불교를 구현하는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택 교수는 끝으로 “보살불교에서 청년불교로, 좌불상에서 입불상으로, 적정의 불교에서 실천의 불교로, 무정의 평화에서 화정의 불교로, 석가의 불교에서 중생의 불

교로, 과거의 불교에서 현재의 불교로 나아가 갈 것”을 주문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선 스님, 원목 스님을 비롯해 광주전남지역 NGO연대 회원 50여명이 참여해 강연과 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광주전남불교NGO연대는 향후 1년 4차례 열린대화마당을 개최해 한국불교와 지역불교의 새로운 대안들을 고민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보람 느끼는 실행으로 불교세 규합”

전북포교대상 수상한 강준희 목사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는 경책으로 알겠습니다.”

1월 11일 전북사암승가회 신년하례법회에서 전북포교대상을 수상한 강준희 씨는 밝게 웃으며 담담히 수상소감을 밝혔다.

강준희 씨가 사는 전북 진안군 인구가 2만명에 불과할 정도로 산간오지다. 불교세 또한 미안산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찰운영이 힘들 정도로 열악하다. 강준희 씨는 현재 진안 고림사 신도회 총무를 맡아 10년 전부터는 고림사 성목 스님과 부처님오신날 연등 판매 수익금으로 성지순례를 시행하는 등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림사 성지순례는 지난해 160여 명의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정도로 활성화됐다.

“불교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주지 스님이 마음을 내고 신도들이 후원하며 시작한 일입니다. 호응이 좋아 보람을 느낍니다.” 현재 BBS 한국청소년연맹 운영위원으로 청소년 장학금을 꾸준히 전달하는 등 포교활동에도 힘쓰고 있는 강준희 씨는 인재발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강 씨는 “장기적으로 재가불자들이 스님들과 힘을 모아 무료청소년 공부방 운



영 등 청소년 포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강준희 씨는 지역불자들을 규합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강 씨는 “스님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만 재가불자들이 더욱 단합된 모습으로 이를 뒷받침 해야한다”며 “지역 불자들을 규합해 정기적인 교류를 갖는 한편, 다양한 실행활동으로 보람을 느끼는 자발적인 신도회 문화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강 씨는 끝으로 “이들의 역량을 모아 지역 자원봉사 등 다양한 활동으로 전북 지역에 불교세가 융성하도록 계속 노력해 갈 것”이라며 불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북불교회관 보현사, 종석스님 초청법회

1월 19일, 300여명 모여 ‘탐진치’ 버리기 서원



종석 스님은 1월 19일 법문을 통해 탐진치를 버리고 생각마다 보리심을 낼 것을 주문했다.

전북불교회관 보현사(주지 성우스님)는 1월 19일 4층 큰 법당에서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前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장 종석 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종석 스님은 법문을 통해 “인생은 자기 장엄이며 부처님에 대한 발원과 일념, 정신력이 바로 나를 만든다”며 “탐진치를 버리고 불발승에 귀의하여 생각 생각마다 보리심을 내면 지금있는 바로 이곳이 극락세계”라고 불자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날 법회를 주관한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은 “갑오년 새해에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실행활동과 불법수호에 노고가 많은 지역 불자들을 위해 법회를 마련했다”며 “보다 적극적인 실행활동과 지역 불교 발전을 위해 불자들이 노력하자”고 말했다.

전북불교회관 보현사는 일요일법회 중 한 차례 전북불교신도회의 주관으로 특별 초청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또 매주 화엄불교대학 강의는 물론 일요일법회, 어린이 법회 등 요일마다 다양한 법회가 열리는 지역불자들의 실행생활의 중심이 되는 전법도량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생활불교동구협, 독거노인 위한 떡국 전달

떡국떡 50세대분 광주동 구청에... “따뜻한 설 되길”



생활불교동구협은 1월 21일 광주 동구청을 찾아 떡국떡 50세대분과 쌀 20포대를 전달했다.

민족의 명절 설을 맞아 지역불교계의 온정이 전해지고 있다. 사)생활불교동구협(대표 대현)은 1월 21일 광주 동구청에 지역독거노인을 비롯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 떡국떡 50세대분과 쌀 20포대를 전달했다.

이날 마련된 자비의 떡국은 대표 대현 스님, 봉사단장 모덕 스님(해원정사)을 비롯해 회원들이 마련한 음식으로 동구청을 통해 지역 차상위계층에 전달할 예정이다.

대현 스님은 인사말에서 “동구지역은 오래된 주택들이 많은 곳으로 특히 차상위계층의 노인들이 외롭게 설을 지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는 선물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선물을 전달받은 노회용 동구청장은 “불자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은 선물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겠다”며 “앞으로도 불교계에서 지역의 힘든 어르신들에게 마음을 내달라”고 화답했다.

전달식에는 대현 스님, 지각 스님(동원사), 모덕 스님을 비롯해 동구지역 회원사찰과 노회용 동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남원 실상사, 약사여래불 점안법회 봉행

남원 실상사(주지 해강)는 1월 19일 사부대중 2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약사여래 부처님 점안식 및 약사전 중수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지난 2010년 노후된 실상사 약사전의 연목 및 기와의 보수필요성 제기한 이래 4년여에 걸쳐 약사전의 전면해체 보수와 함께 철조 여래좌상의 원위치를 알아보기 위해 전각내 발굴조사를 진행해 왔다.

발굴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약사전에 계신 철불의 부식으로 인한 훼손상태가 심각한 상황임을 발견하고 철불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보수 작업을 진행해 이날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2013년 3월에는 한동안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철조여래좌상의 수인이 복장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지역 불교계 에너지절약 실천 나선다

광주지역 불교계 사찰과 복지시설에 에너지절약과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예정이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연광)는 광주광역시와 ‘에너지절약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한다.

협약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환경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에너지절약과 친환경 에너지 사용 확대를 지속가능한 생활문화로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광주광역시와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에 LED조명 교체, 태양광 발

전소 설치를 지원하며, 탄소은행 가입·실천을 통해 에너지절약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에 설치비 75%의 지원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며, 종교시설의 자가용 발전에 대해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1월 중 협약식을 체결된 후 광주시는 2월 중으로 시설 수요를 파악하고 국비를 신청할 계획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 85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야간 및 통상생)

기본과정 (37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범고) 다루는법, 도량석, 쇠송, 상단에불, 각단에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식시 등
중급과정 (37월)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시, 다비시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실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4년 2월 모집중

◆개강일시 : 2014년 2월 개강
매주 (화·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영명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힘의 / 원천 / 빠르게 / 배우는

법화경 핵심사상

(법문자료집)

표범연화경은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경전이다. 무한한 시간과 공간에서 석가세존의 자비 원력은 우리를 우주의 대 광명으로 끌어들이는다.

법화경은 7권 28품이 전부 69,384자로 구성된 구마라주 한역본이다. 글자 한자 한자가 모두 부처님 그 자체라 이름하며, 이 법화경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아플수도 없는 마음의 애환, 아픔, 슬픔과 고통을 대면해주는 생명의 빛이며, 경제, 사회, 군사, 정치, 종교를 창조한다. 신라의 원효스님께서 법화경 중요서에서 극찬 하였고, 인도에 용수보살 같은 분이 세상에서 최고 최대의 보배로운 경이라 극찬 하였다. 그런데 실재로는 법화경의 “**핵심적인 사상과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참 뜻**”은 일상 생활에서 실천되지 못하고 있을 뿐 더러, 이론과 실천이 기쁨과 찬물과 같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법화경의 어느 일부만 가지고 마치 법화경의 모두 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이번 “**법화경핵심사상**”에서 법화경 28품의 핵심 요지를 명쾌하게 드러내어 법문 자료와 독송 기도 하는데 꼭 필요하도록 집필 하였다.

송월스님 편저 / 신국판 양장본 / 값 15,000원 / 260쪽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mail: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금강경요해

金剛經了解

반야, 깨달음의 지혜로 밝힌 금강반야바라밀경 요해 금강반야, 깨달음의 지혜와 경계가 이 책 안에 있다.

- ◆ 아누타라삼막삼보리 깨달음을 향한 소중한 지침서
- ◆ 깨달음의 경계와 자기 점검
- ◆ 깨달음 세계가 이 책 안에 있다.
- ◆ 반야지혜로 밝힌 금강경의 지혜세계
- ◆ 법인지(法印智)로 깨달음을 여는 길
- ◆ 아누타라삼막삼보리는 수행 성취의 지혜가 아니다.
- ◆ 무엇이 깨달음이며, 깨달음은 과연 어떤 것인가?
- ◆ 깨달음의 지혜 여래의 뜻을 밝힌 금강반야바라밀경의 실제
- ◆ 일각요의(一覺了義)로 꿰뚫은 금강경요해
- ◆ 금강 심상과 부사의 공덕세계를 드러낸 지혜의 가르침
- ◆ 불지혜 최고최상의 깨달음, 아누타라삼막삼보리 깨달음 경계는 어떤 것인가?
- ◆ 무위실상 일성원음 본심과 본과와 본성의 세계

세종스님 역저 / 신국판 / 456쪽 / 값 25,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제를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떤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김백만 편저 / 신국판 / 양장본 / 값 50,000원

지금 바로 펼쳐 보십시오!